

# 슬로베니아의 언어 정책

이용 · 슬로베니아 국립류블랴나대학교 교수

## 1. 슬로베니아의 언어 현황과 과제

슬로베니아(Republika Slovenija(슬), Republic of Slovenia(영))의 언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슬로베니아와 슬로베니아어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슬로베니아는 오랫동안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 유고슬라비아 등의 일원으로 있다가 1991년에 비로소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이다. 인구는 약 200만 명이고 면적은 20,273km<sup>2</sup>로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를 합한 정도이다. 중앙 유럽과 남유럽에 걸쳐 있는 이 나라는 알프스 산맥 끝 부분과 지중해에 접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서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크로아티아, 북동쪽으로는 헝가리, 북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다. 수도는 류블랴나다.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1991년 독립 이전에도 오랫동안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독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2004년에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였다.

슬로베니아어(Slovene 또는 Slovenian)는 슬라브 어족의 남슬라브 어군에 속하는 언어이다. 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 정도의 사용 인구가 있

다. 사용 인구 중에 185만 명 정도가 슬로베니아에 있고 나머지는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등에 있다. 유럽 연합(EU)의 23개 공식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독일어, 로만스어, 핀·우그리아어의 영향을 받았다.

한편 슬로베니아는 1991년 독립 이후에 처음으로 다수 언어 사용자 국가가 되었다. 지금이 슬로베니아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한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슬로베니아어의 사용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위기의식은 슬로베니아어가 비교적 적은 언어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일상생활에서 외국어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이제까지 본 슬로베니아와 슬로베니아어의 현황에 대한 간략한 파악은 슬로베니아가 취하고 있는 언어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언어 정책의 주요 골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로베니아의 언어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해를 시작한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지금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어·민족적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sup>1)</sup> 이것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큰 언어 공동체를 가지지 않은 많은 국가들이 그렇듯이 생존을 위해서는 모어 이외에도 외국어에 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이 자국 내에 사는 소수 언어 사용자들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수 언어 사용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소수 언어 사용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독립 이전에

---

1) 이와 관련해서 250만 명의 언어 사용자가 적은 것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언어 중 95%는 현재 200만 명 이상의 언어 사용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는 자기들의 언어가 국가 내에서 한 번도 다수인 적이 없었던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적인 문제는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 자국어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외에서 살고 있는 슬로베니아어 사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언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

### 2.1.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발전 정책

슬로베니아 정부는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발전이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도우며 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sup>2)</sup> 슬로베니아 정부는 슬로베니아어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로서 2004년에 ‘슬로베니아어의 공공 사용에 관한 법안(Act on Public Use of the Slovene Language)’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총 7개의 조목(provision)과 38개의 항목(article)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슬로베니아 공화국에서 공식어는 슬로베니아어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언어생활은 공식어인 슬로베니아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정책의 집행과 계획에 대한 업무의 총괄은 문화부의 슬로베니아어 분과(Služba za slovenski jezik)에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발전에

---

2)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에서 나온 ‘문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Nacionalnem programu za kulturo(NPK)2008~2011)’을 보면, 세계화와 통합의 물결 아래 작은 국가의 언어가 소멸하는 현실적 위험 속에서 슬로베니아어의 보호는 문화 정책에서 우선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는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있고 또 문화의 중심에는 슬로베니아어가 있으므로 슬로베니아어의 보호는 문화 정책에서 가장 우선한다는 사실을 또한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 발행한 ‘슬로베니아의 국가 발전 전략(Strategiji razvoja Slovenije (SRS))’에 보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발전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관한 것이다. 유럽 연합 내에서 약 200만 명이라는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진 슬로베니아의 입장에서는 특히 슬로베니아어의 보호가 시급한 문제가 된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조항들은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교육, 웹사이트, 무역 업무, 미디어, 신문,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슬로베니아어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보장하고 있다.<sup>3)</sup> 지면 관계상 미디어와 관련된 조항(제1조 제22항)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슬로베니아 공화국에 등록된 미디어에서는 슬로베니아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 (2)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외국어는 모두 슬로베니아어로 통·번역되어야 한다.
- (3) 외국어로 이루어진 전언이 미디어에서 통용된다면 슬로베니아어로 된 전언보다 더 눈에 잘 띄게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 (4) 특집 프로그램이나 이 항목의 (1)번과 (2)번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 상황일 때는 문화부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위의 조항은 지극히 명확한 것들이라 논의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존재한다.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법률로 정해서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조항들도 이와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다. 이는 슬로베니아에 외국어가 깊이 침투해 있고 이것이 슬로베니아 정부에게도 심각한 문제임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외국어를 금지하는 조항을 제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언어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고충이 잘 드러난다.<sup>4)</sup>

---

3) 많은 과학과 학문 분야에서 영어가 주류를 이루는 전 세계적 현상은 비단 슬로베니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학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서 크나큰 장벽이 아닐 수 없다. 작은 나라일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문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이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

‘슬로베니아어의 공공 사용에 관한 법안’이 슬로베니아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라고 한다면 2006년에 발행된 ‘언어 정책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해결책(2007~2011)(Nacionalni program za jezikovno politiko, Resolution on National Programme for Language Policy)’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문서는 문화부 언어 정책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언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사업의 주체, 담당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sup>5)</sup> 또한 말미에는 구체적인 예산을 밝히고 있다. 이제 2012년이 되면 이제까지의 언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 정책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해결책(2012~2016)’을 마련하여 언어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 2.2. 외국어 관련 정책

외국어와 관련하여 슬로베니아 교육체육부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외국어의 습득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유럽 연합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주의와 다언어주의를 권장하는 정책에도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다. 외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학교에서의 교육을 보면, 학생들은 제1 외국어는 초등학교 9년 과정 중 4학년부터 필수 과목으

---

4) 이러한 고충은 외국어의 금지는 유럽 연합의 ‘다문화주의’나 ‘다언어주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생기는 것이다.

5) 언어 정책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슬로베니아어 사용에 관한 법적 준비를 시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권고
- ② 국가 프로그램에서 언어 정책의 포함에 대한 모니터
- ③ 슬로베니아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지적과 불만의 접수
- ④ 슬로베니아어를 확대, 증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용자
- ⑤ 표준 슬로베니아어에 대한 정보적 설명 제시
- ⑥ 유사한 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관과의 공동 작업

로 배우고 제2 외국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스페인어 등)는 7학년부터 필수 선택 과목으로 배우고 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4년 과정에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2 외국어 역시 필수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실제 선택되는 언어를 보면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를 막론하고 영어가 90% 정도, 독일어가 60% 정도에 이른다. 교육체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어 교육을 제3 외국어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2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외국어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이 나라에는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다. 서너 개의 외국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슬로베니아인들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았고 외국어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언어 정책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해결책(2007~2011)'에 보면, 슬로베니아가 모어 이외에도 외국어 지식이 큰 역할을 하는 사회임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 연합의 다언어주의 정책의 원칙과 요구에도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에 대해 열린 자세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슬로베니아가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외국어의 습득과 자국어의 보호라는 모순적인 상황은 유럽 연합에 들어간 작은 나라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

### 2.3. 소수 언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

앞에서 슬로베니아의 공식어는 슬로베니아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은 이는 부족한 설명이다. 그것은 법에 따라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의 국경 지대인 프리모레(Primorje)에서는 이탈리아어가, 슬로베니아와 헝가리의 국경 지대인 프레크무레(Prekmurje)에서는 헝가리어가 공식어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국경 지대의 이탈리아인과 헝가리

인들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미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슬로베니아에서 이탈리아와 헝가리 지역의 소수 집단 언어 사용자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을 때부터다. 이러한 관심은 소수 집단 언어 사용자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려는 유고슬라비아 지역 내에서 소수였던 자신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sup>6)</sup> 이와 더불어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국경 지대에 있는 자국민의 언어에 대한 보호이다. 국가 간의 관계가 철저히 주고받는 관계에 충실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국가의 국경 지대에 있는 자국민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상대국의 국민에게 언어에 대한 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수 집단 언어와 관련하여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 그것은 과거 같은 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에서 온 언어 그룹이다. 이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비슬로베니아어 화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슬로베니아어 관련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이 어린이들의 부모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슬로베니아 정부에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제2 언어, 외국어로 슬로베니아어를 배우는 사람들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망명자들에게 슬로베니아어를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문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08~2011(National Programme for Culture 2008~2011)'에 나와 있다.

---

6) 슬로베니아의 인구는 유고슬라비아 인구의 8%에 지나지 않았다.

### 3.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와 표준어 정책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와 표준화는 이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진행되고 확립되었다. 슬로베니아어 표준화에 대한 시도의 연원은 종교 개혁 시기인 16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때 슬로베니아는 게르만 족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슬로베니아에서 인쇄된 최고의 책은 프리모주 트루바르(Primož Trubar, 1508~1586)의 《Catechismus》(1550년, 교리 문답서)이다. 트루바르는 당시에 이미 방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태어난 곳의 방언을 바탕으로 슬로베니아어를 표기하였다. 유리이 달마틴(Jurij Dalmatin, 1547~1598)은 성서를 번역하여 이 표기법을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17세기에 들어서는 반종교 개혁의 시대가 오면서 표준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를 향한 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슬로베니아의 표준어<sup>7)</sup>는 결국 18세기에 슬로베니아 중부 방언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로는 언어학자인 예르네이 코피타르(Jernej Kopitar, 1780~1844)와 문학가인 프란체 프레세렌(France Preseren, 1800~1849)<sup>8)</sup>을 들 수 있다. 코피타르로부터 시작된 표준어

- 
- 7) 슬로베니아의 표준어는 우리가 가진 표준어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슬로베니아의 표준어는 인공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우리처럼 어느 한 지방의 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표준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휘와 문법 구조 등에 있어서 선택된 방언 요소와 역사적인 어문 전통을 토대로 하여 표준어가 만들어졌다. 표준어의 슬로베니아어인 'knjižni jezik'을 우리말로 옮기면 '문학어'나 '문어' 정도로 옮길 수 있는데 '문어'로서 표준어는 텔레비전, 교재, 학교 수업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쓰인다. '문어'로서 표준어가 구어로 실현된 것이 '구어 표준어'이다. 따라서 '구어 표준어'도 인공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문어로서 표준어가 방언에 따라서 구어로서 표준어로 다르게 실현되기 때문에 표준어도 방언에 따른 변이형을 지니게 된다.
- 8) 프레세렌은 지금까지도 슬로베니아에서 슬로베니아 '문학어'의 전범을 보인 국민 시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는 프레세렌의 작품을 통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코 피타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슬로베니아어에 들어 있는 독일어적 요소로부터 탈피였다.<sup>9)</sup> 정서법과 관련해서 보면, 정서법은 막스 플레테르슈니크(Maks Pleteršnik)의 슬로베니아-독일어 사전에서 집대성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는 유고슬라비아의 체제 아래에서 세르보·크로아트어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착되었다.<sup>10)</sup>

이런 과정을 거쳐 확립된 슬로베니아어의 표준어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슬로베니아 과학예술 학술원(Slovenska akademija znanosti in umetnosti, SAZU)이다. SAZU에는 철자 위원회와 프란 라모브시 슬로베니아어 연구소(Fran Ramovš Institute of Slovenian Language)가 있는데 이곳에서 슬로베니아어 철자와 문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AZU에서 펴내는 《Slovenski pravopis》(슬로베니아어 철자법)는 슬로베니아 철자법의 지침이 된다. 이 책과 관련하여 최근판의 출간은 2001년에 있었고 이에 대한 재인쇄가 2003년에 이루어진 바가 있다. 여기에는 130,000항목의 어휘에 대한 철자법 안내가 있다. 슬로베니아어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 역시도 SAZU에서 편찬하였다. 이것은 《Slovar slovenskega knjižnega jezika》(표준 슬로베니아어 사전)로 불리는데 처음에 DZS(Državna založba Slovenije) 출판사에서 1970년에서 1991년 사이에 5권으로 출판되었다. 이 사전은 100,000항목 이상의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1990년대 들어서 이 사전은 전자화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해졌다.

방언은 표준어와 더불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슬로베니아

---

9) 이것은 한국어가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10)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슬로베니아어는 유고슬라비아 공식어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에서 슬로베니아어를 쓰는 인구는 8%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언어를 세르보·크로아트어로 단일화하려고 하였다.

의 방언은 8개의 대방언권과 48개의 소방언권으로 나뉜다. 이들 중 몇몇 방언은 표준어와 확연히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sup>11)</sup> 방언에 대한 연구도 또한 프란 라모브시 슬로베니아어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방언들이 지금 당장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슬로베니아 당국에서 특별히 표준어를 장려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sup>12)</sup>

#### 4. 맺는말

슬로베니아가 처해 있는 언어적 상황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처해 있는 언어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슬로베니아의 입장에서 언어적 정체성의 확립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자국 내에서 보이는 소수 언어 사용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어찌면 자신들을 향한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슬로베니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언어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슬

---

11) 방언 중에서 표준어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프레크무레(Prekmurje) 지방의 방언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슬로베니아의 다른 지역과 이질적인 면이 많다.

12) 이와 관련하여 슬로베니아어의 표준어와 비표준어가 지닌 양층 언어(diglossia)적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표준어가 인공적인 성격을 지니다 보니 문어와 구어 간에 간극이 생기고 계층에 따라 언어가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로베니아인들이 역사적으로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으면서도 슬로베니아어를 굳건하게 지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둘 만하다. 이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와 표준화의 토대를 확립하고 오늘날의 슬로베니아어를 만든 이들의 저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 참고 문헌

- Bajec, A. Kolarič, R. & Rupel M.(1964), *Slovenska slovnica*, Ljubljana: DZS.
- Herrity, Peter(2000), *Slovene :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reenberg, Marc L.(2008), *A Short Reference Grammar of Slovene*, Munich: LINCOM.
- SAZU ed(1995), *Slovar slovenskega knjižnega jezika*, Ljubljana: DZS.
- Toporišič, Jože(1992), *Enciklopedija slovenskega jezika*, Ljubljana: Mladinska knjiga.
- Toporišič, Jože(2000), *Slovenska slovnica*, Maribor: Založba Obzorja.

## 관련 누리집

- [http://www.culture.si/en/Fran\\_Ramov%C5%A1\\_Institute\\_of\\_the\\_Slovenian\\_Language](http://www.culture.si/en/Fran_Ramov%C5%A1_Institute_of_the_Slovenian_Language)(프란 라모브시 슬로베니아어 연구소)
- <http://www2.ku.edu/~slavic/sj-sls/2009/index.shtml>(캔자스대학교 슬로베니아어학과)
- [http://www.mk.gov.si/si/zakonodaja\\_in\\_dokumenti/veljavni\\_predpisi/slovenski\\_jezik/](http://www.mk.gov.si/si/zakonodaja_in_dokumenti/veljavni_predpisi/slovenski_jezik/)(슬로베니아 문화부)

<http://www.culturalpolicies.net>(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유럽의 문화 정책과 경향에 대한 개요)